

도시 스카이라인 보존·관리기법에 관한 연구(I)

임승빈* · 오규식**
윤인규*** · 박창석***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 *** 서울대학교 대학원

A Study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Technique of Urban Skylines

Im, Seung-Bin* · Oh, Kyu-Shik**
Youn, In-Gyu*** · Park, Chang-Sug***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

** Dept. of Urban Engineering, Hanyang Univ.

***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

ABSTRACT

This study is a fundamental research to propose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technique of urban skylines in case of Seoul City, and to find landscape resources that based on investigation of characteristics of urban landscape. The questionare is designed for citizens' perception of urban landscap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representative landscapes in Seoul City are chiefly Mt.Nam, Han River, 63 Bldg, Kyungbokgung, Namdaemun, etc. The difference of the reasons of chosing for representative landscapes is that there must be a certain difference in direction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landscape.
- 2) The ward which don't have obvious representative landscapes requires process survey and designation for representative landscapes, and technique for strenghtening them.
- 4) The major places of viewing the impressive or beautiful landscape are classified into places of viewing whole Seoul City(ex; Mt.Nam, 63 Bldg, Seoul Toewr, MT Kwanak, etc) and places of viewing Han River(ex; Youido Square, Olympic Road, Riverside parks of Han River etc).
- 5)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landscapes, it is requisite for harmony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technique between Seoul City and each ward.

I. 研究背景 및 目的

스카이라인은 지상의 地形·地物과 배경이 되는 하늘과의 경계선을 말한다. 對內外的인 이미지의 구축이 필요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나 歷史性의 보존이 절실한 古都 등에서는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며 적절한 경관창출이 필요하며, 특히 스카이라인은 도시경관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다.

고층건물이 증가하면서 도시경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카이라인은 무척 혼란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관리기법에 대한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 스카이라인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총체적인 기법에 관한 연구나, 도시계획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문제 중심적이고 장소적 특성이 고려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런던, 파리, 샌프란시스코 등의 외국 도시에서는 도시의 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스카이라인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보존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도시경관의 質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도시의 개성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스카이라인의 보존·관리 기법의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시민의 경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서울시 도시경관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서울시 스카이라인 보존·관리의 대상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경관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과 일반시민의 판단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Oh, 1992), 시민의 도시경관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실제 시민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한 도시경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보다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보전 및 관리의 대상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研究史

도시경관에 대한 연구는 1) 도시경관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도시경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경관 분석·평가에 관한 연구: 고층건물의 경관영향평가방법에 관한 연구(Conway, 1977; 文, 1990; 任, 1991), 스카이라인에 관한 연구(Attoe, 1981; Catchpole, 1987; 李, 1987; 李와 金, 1989; 朴 등, 1992; Im, 1992) 등이 있다. 또한 안(1990), Oh(1991), 최와 강(1992)은 도시경관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기법의 응용을 연구하였다.

② 도시경관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 조(1985)는 도시경관의 美的 質에 대한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世田谷區에서 경관지구의 설정과 경관지구별 경관관리정책에 대한 연구(總合研究開發機構, 1985; 世田谷區企劃部都市デザイン室, 1988; 世田谷區, 1991)와 神戶市, 北九州市, 越谷市, 昭津市에서 도시경관의 유형에 관한 연구(まどりのまちつくり研究會, 1987; 靜岡縣都市住宅部, 1989)를 수행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도시설계규정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규제하고 있다(Kenneth, 1978; Jonathan, 1987).

III. 研究方法 및 內容

1992년의 행정구역상의 서울市를 사례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이유는 자연경관, 도시인공경관, 역사경관 등의 다양한 경관이 나타나고 있고 도시경관상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조사내용은 서울市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중점을 두되 스카이라인의 보전 및 관리기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市 대표경관, 區別 대표경관, 경관수식인자, 주요조망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역은 서울市 전역에 걸고루 분포되

도록 각 22개 區(자연녹지지역, 특수업무지역 제외)를 面積으로 3등분하여 총 66개의 지역을 설정한 후 66개 각 지역의 중앙점에서 반경 200m 지역으로 정하였다. 각 설문조사지역별로 10부씩의 설문지를 할당하여 각 區에서 30부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행정동의 20세 이상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총화 추출된 응답자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무작위로 각 주거를 방문하여 개별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1992년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였고, 회수된 총 660매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645매를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설문자 특성

설문자의 연령분포는 전체 서울시민의 연령별 분포(20대 : 32%, 30대 : 29%, 40대 : 18%, 50대 이상 : 20.9% ; 서울시, 1990)와 비슷하고, 성별분포 역시 서울시의 성별분포(남 : 50.2%, 여 : 49.8% ; 서울시, 1990)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설문자의 대부분(76.9%)은 서울에 장기간(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區에 거주한 기간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1).

2. 서울市 代表景觀 分析

서울市 대표경관을 경관의 형식에 따라 크게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으로 구분하였으며(任, 1991), 특히 인공경관은 역사경관과 역사경관을 제외한 도시인공경관으로 세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경관은 한강과 高度 200m 이상이고 녹지 자연도 6등급 이상인 緑地로 14개를 선정하였으며, 역사경관은 ① 1945년 以前, ② 주요 도로변(왕복 4차선이상), ③ 국보·보물·사적을 기준으로하여 18개를 선정하였다. 도시인공경관은 공

공성, 대표성, 독특성을 기준으로 15개를 정하였다. 앞서 선정된 48개 항목(서술형인 기타항목 1개 포함)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직접 서울시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地形·地物을 3개이상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1% 이상의 응답율을 나타낸 지형·지물을 제시한다.

〈표 1〉 설문자 특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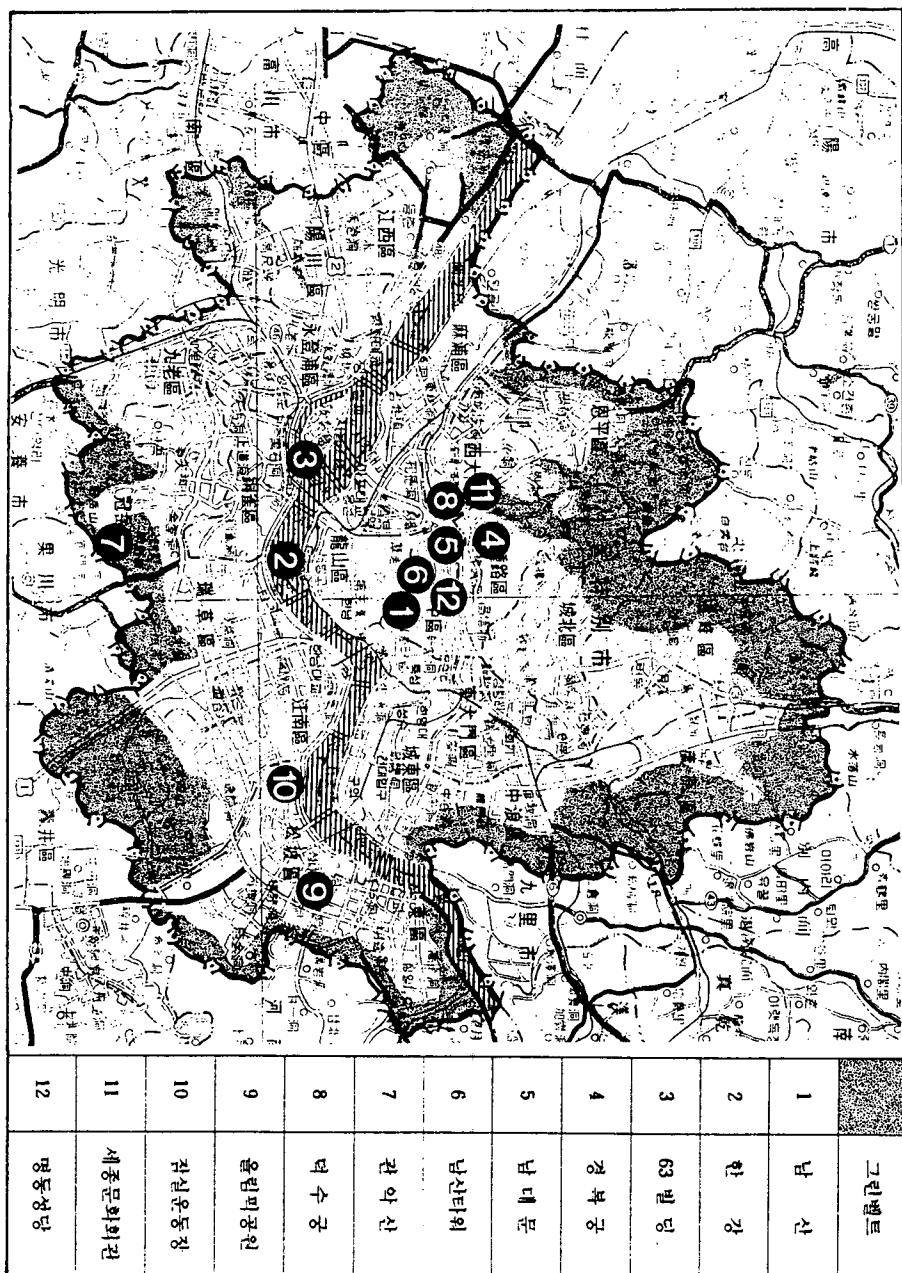
(단위 : %)

문 항	분류항목	빈 도 수	비 율
성 별	남	348	53.9
	여	297	46.1
연 령	20~39歳	236	36.6
	30~39歳	187	29.0
	40~49歳	119	18.4
	50歳 以上	103	16.0
직 업	회사원·공무원	148	24.0
	상공 서비스 자영업	111	18.0
	자유업	78	12.6
	주 부	131	22.2
	학 생	126	20.4
	무 직	23	3.7
거주기간 (區)	1년 미만	47	7.3
	1~3년 미만	100	15.6
	3~5년 미만	109	17.0
	6~10년 미만	150	23.5
	11~15년 미만	93	13.8
	15년 이상	146	22.8
거주기간 (市)	1년 미만	9	1.4
	1~3년 미만	26	3.9
	3~5년 미만	52	7.9
	6~10년 미만	64	9.9
	11~15년 미만	76	11.8
	15년 이상	418	65.1

설문조사결과(〈표 2〉 및 〈그림 1〉), 남산이 56%(645명의 응답자 중 361명이 선택 : 응답율(%)) = (해당 지형·지물을 선택한 응답자 수 / 총 응

답자 수)*10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한강(46%), 63빌딩(39%), 경복궁(32%), 남대문(25%), 남산타워(21%), 잠실운동장

(13%), 올림픽공원(13%), 덕수궁(13%), 세종문화회관(11%), 명동성당(10%)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서울市 代表景觀圖

남산의 응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남산이 서울市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경관이며, 남산 경관의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남산타워의 응답율이 21%로 나타났는데, 이는 63빌딩과 같이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조망성(〈표 3〉참고)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2〉 서울시 대표경관 분석 (종복응답)

대표경관	응답율(%)	대표경관	응답율(%)	대표경관	응답율(%)
남 산	56	한 강	46	63빌딩	39
경 복 궁	32	남대문	25	남산타워	21
관 악 산	15	덕수궁 잠실운동장 올림픽공원	13	세종문화 회관	11
명동성당	10	광화문 도봉산 무역센타	9	독립문	8
동 대 문 국립묘지 서울역사	6	창덕궁 예술의 전당 고속버스터 미널	5	행주산성	4
수 락 산 인 왕 산	2	아차산	1

* 1% 이하의 응답율을 보인 경관은 생략함

** 응답율(%)=(해당 지형·지물을 선택한 응답자 수/총 응답자 수)*100

서울市 대표경관으로의 선정이유를 ① 자주 가던 곳, ②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 ③ 경관이 좋은 곳, ④ 누구나 아는 곳, ⑤ 서울시민의 유일한 곳, ⑥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곳, ⑦ 규모가 큰 곳, ⑧ 기타(해당이유가 없을 경우 서술하시오)의 8가지를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직접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자연경관에서 緑地는 전체적으로 '자주 가던 곳'(36.3%)과 '경관이 좋은 곳'(33.9%)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남산은 '누구나 아는 곳'(30%), '서울시민의 유일한 곳'(20%),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곳'(19%)이 높게 나타났다. 한강은 '서울시민의 유일한 곳'(38%)과 '누구나 아는 곳'(33%)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경관은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산타워, 63빌딩, 무역센타, 잠실운동장, 올림픽경기장, 세종문화회관 등의 도시인 공경관은 '서울시민의 유일한 곳'(24.6%)과 '누구나 아는 곳'(22.2%)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산타워(39%)와 63빌딩(32%)에서는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곳'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

이러한 서울市 대표경관으로의 선정이유의 차이는 경관 대상에 따라 경관의 보존 및 관리의 방향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남산은 '누구나 아는 곳'과 '서울시민의 유일한 곳'에 기초하고, 한강은 '서울시민의 유일한 곳'과 '누구나 아는 곳'에 기초하여 '경관이 좋은 곳',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곳' 등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경관 보존 및 관리 방안의 마련이 바람직할 것이다.

3 區別 代表景觀 分析

거주하고 있는 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地形·地物을 응답자가 직접 2개 이상 적도록 하는 자유응답설문에 의한 區別 대표경관 분석결과 (〈표 4〉 및 〈그림 2〉), 도봉구, 노원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마포구, 서초구에서는 11이 각 區의 대표경관으로, 중랑구, 성동구, 양천구, 송파구, 강동구에서는 公園이 각 區의 대표경관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63빌딩), 강남구(KOEX빌딩), 용산구(국제빌딩)에서는 고층건물이, 종로구는 경복궁(48% : 응답율(%))=(해당 지형·지물을 적은 응답자 수/총 응답자 수)*100이 대표경관으로 나타났다. 동대문區에서는 동대문(43%)이, 강서구에서는 강서구청(50%)이 구의 대표경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북구와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에서는 대상지명에 대한 최고응답율이 21%~3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區를 대표할만한 뚜렷한 경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區의 行政境界上에 위치한 경관으로서 올림픽공원은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대표경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라매공원은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미도파백화점(북부지원)은 노원구와 동대문구에

서의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地形·地物이 속하는 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市 대표경관으로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한

강은 區의 대표경관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는 한강을 거주하고 있는 區에 속해있는 경관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서울市 전체적인 경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3〉 서울시 대표경관 선정이유 분석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자연경관	녹지	관 악 산	43	26	—	21	3	5	1	—
		남 산	8	17	5	30	20	19	1	1
		북 악 산	20	51	2	13	9	2	4	—
		도봉 산	39	37	2	15	3	2	2	2
		수 락 산	50	43	—	—	—	7	—	—
		아 차 산	75	25	—	—	—	—	—	—
		인 왕 산	19	38	25	6	—	6	—	6
	평 균		36.3	33.9	4.9	12.1	5	5.9	1.1	13
	하천	한 강	5	7	9	33	38	4	—	3
역사경관	門	광화문	4	2	65	22	8	—	—	—
		남대문	5	2	58	24	9	1	—	1
		동대문	2	5	58	26	9	—	—	—
		독립문	8	2	77	6	6	—	—	—
	궁궐	경복궁	4	7	79	5	5	—	—	—
		덕수궁	16	12	60	7	4	—	1	—
		창덕궁	—	—	94	6	—	—	—	—
	기타	행주산성	5	5	74	11	—	5	—	—
		명동성당	19	—	34	24	19	—	2	2
		서울역사	9	—	20	43	23	—	3	3
	평 균		65	35	62.1	17.3	8.5	0.7	0.6	0.7
도시인공경관	남산타워	4	19	2	15	20	39	1	1	—
	국립묘지	—	4	64	16	11	2	—	2	—
	무역센타	21	4	2	21	13	17	15	8	—
	63빌딩	1	4	2	17	22	32	21	—	—
	예술의 전당	3	13	3	3	33	13	23	7	—
	세종문화회관	13	—	6	22	42	—	10	7	—
	잠실운동장	9	1	15	26	27	1	16	5	—
	올림픽경기장	6	—	21	24	30	—	14	5	—
	강남터미널	41	—	—	50	6	—	—	3	—
	평 균	13.7	4.5	6.1	22.2	24.6	11.3	13.4	4.3	—

* ①: 자주 가던 곳, ②: 경관이 좋은 곳, ③: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 ④: 누구나 아는 곳, ⑤: 서울시만의 유일한 곳,

⑥: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곳, ⑦: 규모가 큰 곳, ⑧: 기타 (해당 이유가 없을 경우 서술하시오)

** 백분율(%)은 각각의 대표경관에 대한 응답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백분율(%)=(해당 선정이유의 응답수/선정이유 총 응답수)*100

(표 4) 区別 대표경관 분석(중복응답)

區名		區分				
도봉구	* 대상지명	도봉산	수락산	신세계 백화점	북한산	4·19탑
	%**	91	22	19	16	16
성북구	대상지명	정릉	청수장	성신여대	정릉공원	북악산
	%	27	20	13	13	13
노원구	대상지명	수락산	불암산	태릉 도봉산	미도파백화점 (북부지원)	
	%	73	61	23	12	
동대문구	대상지명	동대문	배봉산	맘모스 청량리역	미도파백화점 (북부지원)	
	%	43	27	17	13	
중랑구	대상지명	용마공원	용마산	동서울스 포츠센타	아차산	상봉 터미널
	%	50	36	18	18	18
성동구	대상지명	어린이 대공원	아차산	전국대	위키힐	한양대
	%	84	57	16	16	11
종 구	대상지명	남산	장충공원	덕수궁	남대문	남산타워
	%	75	50	29	17	13
용산구	대상지명	국제빌딩	남산	고수부지	용산역	-
	%	41	33	22	15	-
종로구	대상지명	경복궁	창덕궁	파고다	삼청공원	종각 종묘
	%	48	27	24	24	21
은평구	대상지명	북한산	인왕산	불암산	매봉산	-
	%	60	12	12	12	-
서대문구	대상지명	연세대	독립문	이화여대	백련산	안산 봉원사
	%	26	22	22	17	13
마포구	대상지명	와우산	홍의대	마포구청	가든호텔	마포대교
	%	41	21	14	14	10
영등포구	대상지명	63빌딩	여의도광장	해태공장	트원빌딩	고수부지
	%	62	31	15	13	13
구로구	대상지명	고려병원	부녀회관	야수터	구로공단	區廳
	%	21	18	18	18	11
강서구	대상지명	區廳	우장산	88체육관	화곡공원	기독교대학
	%	50	40	33	33	27

양천구	대상지명	파리공원	근린공원	목동APT	아이스	칼산공원
	%	56	32	24	20	12
관악구	대상지명	관악산	보라매공원	낙성대	서울대	-
	%	100	33	29	29	-
동작구	대상지명	국립묘지	보라매공원	장승백이	사육신묘	야수터
	%	33	16	12	12	12
강남구	대상지명	KOEX	대모산	도산공원	區廳	임구장거리
	%	50	34	22	13	13
서초구	대상지명	우면산	법원청사	강남고속	양재시민	국립
	%	54	46	38	15	도서관
송파구	대상지명	올림픽공원	롯데월드	석촌호수	잠실운동장	-
	%	77	61	32	29	-
강동구	대상지명	올림픽공원	암사선사	목산호텔	목산백화점	-
	%	41	19	15	15	-

* : 대상지명은 10% 이상의 응답율(%)을 보인 경관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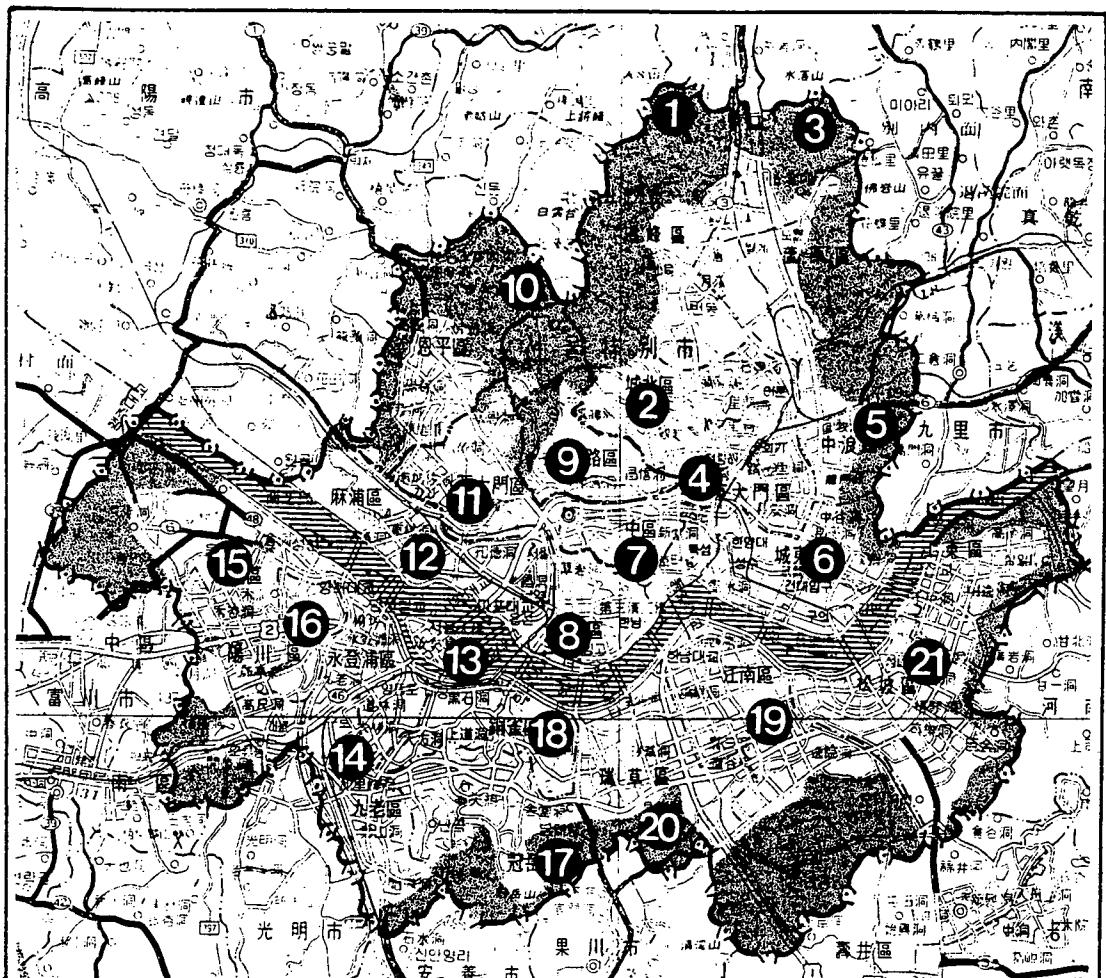
** : %(응답율)=(해당 지형·지물을 선택한 응답자 수/총 응답자 수)*100

*** : 한 사람이 2개이상을 적었으므로 区別 대상지명의 응답율(%)의 총 합계가 100% 이상일 수도 있다.

4. 서울市의 景觀이미지 分析

경관이미지 조사를 위해서 경관의 물리적 특성, 경관의 일반적 속성, 경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어휘를 수집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총 18개의 어의구별척(semantic differential scale)을 최종 선정하였다. 수집된 어의구별척의 兩極사이를 7단계로 나누고, 서울시 전체 도시경관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를 응답자가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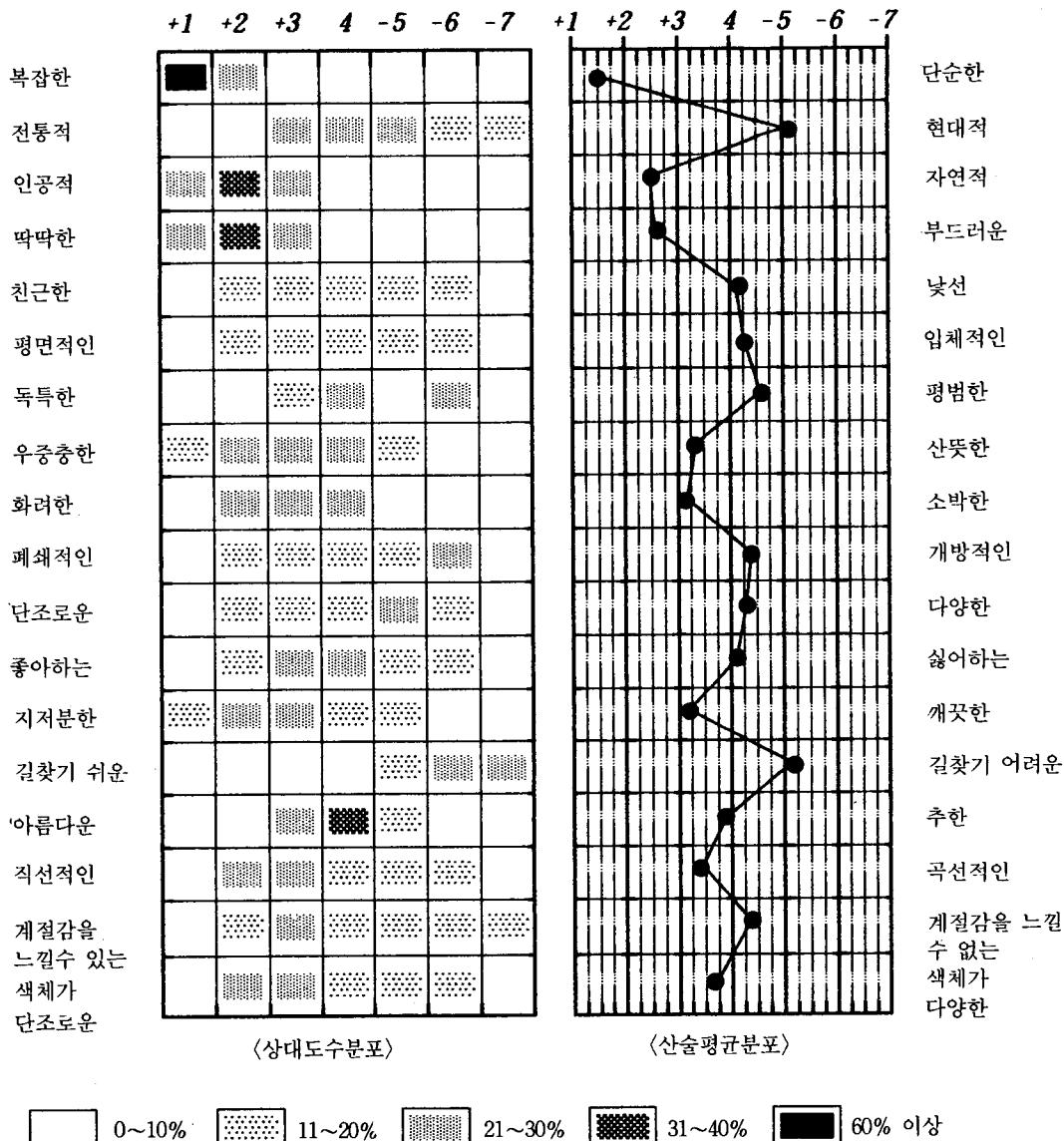
어의구별척의 각 항목에 대한 산술평균은 복잡함, 현대적, 인공적, 딱딱함, 길 찾기 어려움에서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고, 상대도수분포는 복잡함, 인공적, 딱딱함, 아름다움의 항목에서 뚜렷하게 집중되었다(그림 3). 따라서 서울市 도시경관을 '현대적-인공적-딱딱함-복잡함-길 찾기 어려움'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한강	1	도봉산	2	정릉
3	수락산	4	동대문	5	용마공원	6 어린이대공원
7	남산	8	국제빌딩	9	경복궁	10 북한산
11	연세대학교	12	와우산	13	63빌딩	14 고려병원
15	강서구청	16	파리공원	17	관악산	18 국립묘지
19	무역센타	20	우면산	21	올림픽공원*	-----

* 송파구와 강동구의 대표경관으로 응답.

〈그림 2〉 區別 代表景觀圖



〈그림 3〉 서울시 경관이미지 분석

‘복잡함—길 찾기 어려움’의 완화를 위해서는 도시경관에서 랜드마크, 통로, 區域(districts) 등이 쉽게 파악되어져야 하며(Lynch,1960), 또한 현대적인 도시경관의 조성에 있어서 인공적이며 딱딱함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좋아하는—싫어하는’ 항목과 ‘아름다운-추한’ 항

목에 대한 산술평균은 4(보통)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도수분포에서 ‘좋아하는-싫어하는’ 항목은 비교적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름다운-추한’ 항목은 집중된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는 서울市 도시경관의 美的 質(아름다운-추한)에 대한 평가는 어느정도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경관에 대한 選好(좋

아하는-싫어하는)는 시민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5. 서울市의 주요조망장소 分析

서울市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아름다운 경관으로 생각되는 경관을 보는 장소와 대상을 응답자가 3개 이상 직접 적도록 한 자유응답 설문조사결과(표 5), 총 843개의 응답(중복응답)이 나타났다. 이 중 2%(17건)이상의 응답율을 보인 장소는 총 11개였으며 총 응답의 58.1%(490건)를 설명한다. 남산이 13.5%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63빌딩(10.6%), 남산타워(9.5%), 여의도 및 여의도 광장(4.6%), 관악산(3.8%), 올림픽도로(3.7%), 한강시민공원(2.6%), 아차산(2.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市의 전체적인 경관을 볼 수 있는 남산 및 남산타워, 63빌딩, 관악산, 도봉산, 북한산 등에 대한 응답율이 46.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스카이라인을 비롯한 서울市의 전체적인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인 여의도 및 여의도 광장, 올림픽도로, 한강시민공원, 강변도로 등의

〈표 5〉 서울시 주요조망점 분석표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경관		보기싫은 경관	
보는 장소*	비율(%)*	보는 장소*	비율(%)**
남 산	13.5	남 산	7.4
63 빌딩	10.6	3.1 고가도로	5.7
남산타워	9.5	청량리역 및 주변도로	5.4
여의도 및 여의도 광장	4.6	성산대교	4.3
관악산	3.8	광화문사거리	3.3
올림픽도로	3.7	동대문	2.5
한강시민공원	2.6	청계로	2.3
아차산	2.6	남산타워	2.3
광화문사거리	2.5	영등포역	2.1
도봉산	2.4	동호대교-금호터널	2.0
북한산	2.3	—	—

* : 보는 장소는 2.0% 이상의 응답율을 보인 장소만을 제시.

** : 비율(%)=(해당 지역·지물에 대한 응답자 수/전체 응답자 수)*100

응답율이 14.1%로 나타나 한강에 대한 경관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市에서 가장 보기싫다고 생각하는 경관을 보는 장소와 대상을 응답자가 3개 이상 직접 적도록 한 자유응답 설문조사결과(표 5), 총 489개(중복응답)의 응답이 나타났다(표 5). 이 중 2%(10건)이상의 응답율을 보인 장소는 총 10개였으며 응답의 37.3%(181건)를 설명하고 있다. 남산이 7.4%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3.1 고가도로(5.7%), 청량리역 및 주변 도로(5.4%), 성산대교(4.3%), 광화문사거리(3.3%), 동대문(2.5%), 청계로(2.3%), 남산타워(2.3%), 영등포역(2.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보기싫은 경관을 보는 장소로 성산대교를 비롯한 3.1고가도로, 청량리역 주변 도로, 청계로 등의 도로가 26.7%로 높게 나타나 이들 도로변 경관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V. 結論 및 提案

본 연구는 도시 스카이라인 보존·관리 기법의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시민의 인식에 기초하여 서울市 도시경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市 대표경관, 區別 대표경관, 경관이미지, 주요조망장소를 조사하였다.

1) 서울市 대표경관으로는 남산, 한강, 63빌딩, 경복궁, 남대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서울市 대표경관의 선정이유에서 남산의 경우 '누구나 아는 곳', '서울시만의 유일한 곳', '어디에서나 보이는 곳'이 높게 나타났고, 한강은 '서울시만의 유일한 곳', '누구나 아는 곳'이 높게 나타났다. 경복궁과 남대문을 비롯한 역사경관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서울시 대표경관으로의 선정이유의 차이는 경관대상에 따라 보존 및 관리의 방향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관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보존 및 관리기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2) 區別 대표경관으로 12개 區에서는 산 및 공원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층건물(3개 區), 경

복궁, 동대문, 區廳(각각 1개 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북구, 동대문구, 구로구, 동작구에서는 區內의 대상지명에 대한 최고 응답율이 21~3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뚜렷한 區 대표경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區를 대표할만한 지형·지물의 조사 및 선정작업과 선정된 지형·지물이 지니는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 마련이 필요하다.

3) 서울시의 도시경관은 '현대적-인공적-딱딱함-복잡함-길 찾기 어려움'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인공적, 딱딱함, 길 찾기 어려움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아름답거나 인상적인 경관을 보는 장소는 크게 남산, 63빌딩, 남산타워, 관악산 등의 서울市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소와 여의도 및 여의도 광장, 올림픽도로, 한강시민공원 등의 한강을 볼 수 있는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보여지는 도시경관의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 및 이들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보기싫은 경관을 보는 장소로 성산대교를 비롯한 3.1고가도로, 청량리驛 주변 도로, 청계로 등의 도로가 26.7%로 높게 나타나 이들 도로변 경관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도시규모가 크고 서울시 대표경관과 구별 대표경관이 구분되어지므로, 경관대상에 따라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존·관리하는 방안과 일정 구역별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으로 구분함이 보다 적절하다. 이러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세분된 지역인 경관권역의 설정을 위해서는 ① 행정구역, ② 경관의 가시권, ③ 시민들의 경관인식, ④ 시민의 생활영역범위, ⑤ 주요조망점의 고려, ⑥ 토지이용현황 및 규제, ⑦ 지형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경관인식에 대한 연구를 먼저 수행하였다. 이러한 시민의 인식에 근거한 도시경관 특성을 기초로 하여, 이후의 연구에서는 경관의 가시권, 행정구역, 토지이용현황 및 규제, 지형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경관권역을 설정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관권역에 기초하여 서울市의 경

관특성을 고려하여 서울市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카이라인의 보존·관리 체계가 도출되어야 하겠다.

引用文獻

1. 김윤희(1976), 「도시경관의 구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문경도(1990), 「고층건물의 경관영향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박창석, 배정한, 임승빈, 조정송(1992) "수원시의 스카이라인보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농학연구지」 17 (1) : 39~53
4. 서울시(1990) 서울통계연보 30회
5. 이강엽(1987) "서울의 자연형국과 가로경관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2(1) : 69~66.
6. 이규목, 김선일(1989) "서울의 스카이라인." 「토지개발기술」 2(1), 한국토지개발공사 23~30.
7. 임승빈(1990) "고층건물의 경관영향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 : 153~162
8.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9. 안홍탁(1990) 「도시경관의 시각적 질 분석 및 시각 simulation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윤장섭(1990) "도시내 문화재 주변지역의 건축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사론」, 기문당 : 55~75
11. 조영미(1985) 「도시미관의 질적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최병문, 강병기(1992) "CAD를 활용한 도시경관 시뮬레이션과 건축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3. 世田谷區企劃部都市デザイン室(1988)「世田谷らしい景の創造をめざして」。
14. まどりのまつくり研究會(1987)「都市緑化に都市景觀形成事例集—みどり街のをつくる」。
15. 世田谷區(1991)「5 地區の個性化のための」。
16. 静岡県都市住宅部(1989)「景觀形成推進の手引き」。
17. 総合研究開発機構(1986)「都市美創出のためのテサインコントロール手法」。
18. Attoe, W.(1981) *Skylines : Understanding and Moulding*

- Urban Silhouettes*, Wiley.
19. Catchpole T.(1980), *London Skylines : A Study of High Building and Views*, London Research Center.
20. Conway D. J.(1977), *Human Response to Tall Building*. Dowden, Hutchinson & Ross, Inc.
21. Im, Seung-Bin(1992) "Skylin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Rapidly Growing Cities & Regions: Successes and Failures in Korea."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dscaping Planning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University of Tokyo Symposium : 194-208
22. Jonathan Barbett(1987) *An Introduction to Urban Design*, Architectural Record Books.
23. Kenneth, H.(1978) *Downtown USA – Urban Design in Nine American Cities*, Whitney Library of Design
24. Lynch,K.(1960)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25. Oh, Kyushik(1991) *An Appraisal of computer-based Visual Simulation Methods for the Analysis of a Designed Environment*. Ph.D.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CA.
26. Oh, Kyushik(1992) *21st Century, Landscaps and the Future of Region : Issues in Assessing Visual Impact of Changes in the Landscap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Landscape Symposium '92-Koshigaya, Japan.